

한국학 이슈

한국학에 대한 단상

〈'한국적인 것'의 표상들〉 연구과제 사례를 중심으로

서호철 · 김철식 · 장문석 · 정현목 · 허윤

이번 호에서는 학술지 『한국학』이 한국학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 학술지라는 점을 고려해, ‘한국적’인 것은 무엇이고, 한국학의 접근 방식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한국학의 범주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국학자들의 열띤 토론을 신는다.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과제 <‘한국적인 것’의 표상들>에 참여한 연구진이 간담회 패널로 참여해, 연구 과정을 통해 체득한 한국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가감 없이 공유했다.

간담회 개요

일시: 2025년 3월 7일(금) 13:30~15:30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사회: 서호철 (『한국학』 편집위원장, 한국학대학원 사회과학부)

패널: 김철식 (한국학대학원 사회과학부)

장문석 (『한국학』 편집위원,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헌목 (『한국학』 편집위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허윤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서호철: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은 저희 학술지 『한국학』에서 기획한 ‘한국학’에 대한 연속적인 간담회의 일부이고요. 논문에는 담기 힘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현장의 고민을 이런 형태로나마 서로 나눠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저도 연구원에 온 지가 벌써 세월이 꽤 된 것 같은데요. 처음에 취직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구원 이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인데 사실 한국학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가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싶었죠. 그러면서 왔더니 진짜로 연구원 전체 차원에서 ‘한국학이란 무엇인가, 한국학의 할 일과 우리 연구원이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그때는 무척 많았어요. 그런 걸로 한 학기씩, 1년씩 정책과제 같은 것도 진행하고, 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면 미리 어떤 사업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루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한국학계 전반에서는 ‘인문학의 위기’를 한창 이야기할 때였어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똑같은 건데, 이게 인문사회과학으로 분류되면 위기고, 연구자들은 취직이 안 되고, 학교마다 전공 통폐합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 한국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쪽은 또 상황이 약간 다른… 뭐 우리도 상황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정부 부처나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는 한국학, 학술적 한류가 중요하고, 지금 잘되고 있고, 한국학을 배우려고 외국에서 학생들도 많이 오고, 우리 연구원은 그런 한국학의 중심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학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해서, 제가 그나마 아는 건 근현대사니까 1970~1980년대를 조금 뒤져 보기도 했죠. 홍성원 선생의 1977년 소설 『즐거운 지옥』에서도 동도서기니 뭐니 하는 걸 한국학이라고 하고 있고, 여러 대학에 한국학연구소도 생겼고, 무엇보다 지금은 폐간되었지만 중요한 잡지인 『한국학보』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만 해도 인

문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거의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이니까, 사회학으로 치면 노동사회학이든 역사사회학이든 교재 맨 마지막에, 13~15개 장(章) 중에 마지막 하나가 겨우 한국의 노동, 한국의 역사사회학이었으니까. 그때 교수와 연구자들은 언젠가는 우리도 외국 것의 소개가 아니라 한국의 현실을 가지고 학문을 좀 제대로 해 보고 싶다, 그럴 때 생각했던 게 한국학이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는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일반과 별개로 자꾸 한국학이라는 말이 쓰이면서 그것을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지역학처럼 정의하게도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디 가서도 한국학이라고 하면 그걸 어색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입에 익은 말로 정착된 것 같은데, 사실 따져 보면 여전히 뭐지 잘 알 수 없는 걸로 남아 있는 거죠.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딘가 막연하거나 애매한 한국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내포나 외연에 대해 서로 고민들을 나눠 보자는 취지였고요. 뭔가 실마리가 있어야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 마침 작년과 재작년에 정헌목 선생님이 연구책임자를 맡으시면서 <‘한국적인 것’의 표상들>이라는,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한 과제를 진행하셨기에 정헌목 선생님과 과제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을 몇 분 모시고, 과제를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문제의식과 배경이 있었고, 연구를 어떻게 설계했고, 각자 진행하면서 뭘 느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 보려고 합니다. 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연구책임자이신 정헌목 선생님께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어서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헌목: 먼저 서호철 선생님께서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학에서 다루는 것이 어떠한지 한다는 점에 대해 알

게 모르게 기존에 이야기되어 온 게 있었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경험과 비슷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호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한국에 대해 연구할 때 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한국학을 좁은 범위의 분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연구들을 한국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묘한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아 왔죠. 그러던 차에 서호철 선생님께서 이번 간담회 제안을 해 주셨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안이 담긴 내용이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고민이나 문제의식과 딱 맞닿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적인 것’의 표상들〉 연구과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데, 저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기관에 처음 왔을 때 겪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걸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연구과제를 하필이면 왜 제가 맡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2017년에 한중연에 처음 왔고, 작년(2024년) 가을에 해외과견으로 일본에 나오기 전까지 이곳에서 7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7년 동안 한중연의 지정과제 형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탑다운 식으로 내려온 과제들의 연구책임자만 6년을 했어요. 그중에서 지난 2년 동안 진행했던 연구과제가 바로 〈‘한국적인 것’의 표상들〉입니다. 이 과제 말고, 제가 2018년부터 6년 이상 진행해 온 다른 연구과제가 있는데요. 그 과제와 관련한 에피소드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세계한국학대회라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요. 2018년도에 한국에서 열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진행하는 인류학 분야의 연구팀이 세션을 하나 구성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세션이 발표를 다 마치고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을 받을 때, 해외 모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발표는 재미 있게 잘 들었는데, 이 내용이 한국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요. 지금 같으면 훨씬 더 강하게 제 입장을 내세워서

답변했을 텐데 당시에는 그냥 무난하게 답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경험이 저한테는 한국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인류학이라는 학문 분야 자체가 주로 타자에 대한 연구이고 타문화,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해외 어디를 보더라도 그 나라의 인류학자들 중에서 상당수는 자기 나라와 자문화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인류학도 마찬가지고요. 자국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자문화로서의 한국에 대해 타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의 관점과 방법론을 활용해서 객관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죠. 저도 한국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고 어찌다 보니 운이 좋아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기관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2018년만 해도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한 인류학 연구를 하니까 한중연에 올 수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계한국학대회에서의 경험을 겪으며 ‘누가 봐도 한국학 연구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저희 연구팀 같은 인류학자들이 하는 작업을 한국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했던 터라, 당시에는 그 질문에 대해 세련되게 답변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훨씬 더 세련되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본격적으로 〈‘한국적인 것’의 표상들〉 연구과제 이야기로 들어가면, 제가 한중연 연구처의 연구정책실장을 맡고 있던 2021년이었습니다. 당시 안병우 전임 원장님께서 계실 때였는데, 지금은 퇴임하고 명예교수로 계신 사회학 전공의 김경일 선생님께서 『한국의 근대 형상과 한국학: 비교 역사의 시각』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고정되고 정형화된 한국학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책인데, 그 책을 당시 원장님께서 꽤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연구를, 기존의 접근법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연구를 김경일 선생님

께 부탁해서 탐다운 방식의 지정과제로 <한국적인 것의 지형들: 계보와 현재성>이라는 연구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일 선생님을 연구책임자로 열 분 가까이 공동연구자들을 모셔서 1년 동안 진행했어요. 그렇게 공동연구자들의 전공에 따라 한국적인 것의 여러 측면을 기초적으로 탐색하는 과제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후 연구과제 종료와 함께 김정일 선생님께서는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당시 원장님께서서는 후속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한중연의 연구과제 발주 기준으로 명예교수는 연구책임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일 선생님께 과제 진행을 더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연구과제 발주 및 기획·집행을 맡는 부서인 연구정책실의 실장이어서 연구책임자 물색에 나섰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선생님들을 몇 분을 찾아뵙고 연구 책임을 부탁드렸지만 다들 간곡히 고사하셔서 후속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해법이 “그러면 연구정책실장이 맡아서 해 보면 어떨겠나?”라는 거였어요.

되돌아보면 2년 동안 연구책임자로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았어요. 고민 끝에 결국 어찌어찌해서 연구책임자를 맡게 되었는데 여러 난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한중연에 오자마자 겪었던 일도 있고 해서, 흔히 생각하는 ‘한국학’ 혹은 ‘한국적인 것’을 한번 좀 흔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큰 규모의 과제를 진행할 만한 역량도 없고, 특히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건데, 제가 경륜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서 한번 해 보자라는 일종의 욕심을 부린 거긴 해요. 그러면서 한중연 내에서 종교학 전공의 조현범 선생님과 한국사학 전공의 장신 선생님, 사회학 전공의 김철식 선생님, 그리고 연구정책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시던 교육학 전공의 정미량 선생님까지 포함해 원내 연구진을 꾸렸고 2년

차 들어서는 인문지리학 전공의 정치영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그런데 원내에 계신 선생님들만 모셔서는 이런 연구과제를 충분히 진행할 수 없었죠. 아무래도 관심사나 전공이 제한적이니까요. 그래서 원내의 공동연구원 선생님들께 추천을 받아서 한중연 바깥에 계신 분들을 따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모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허운 선생님, 과학기술학 분야의 김기홍 선생님, 문학 분야의 최병구 선생님, 지리학자인 임동근 선생님이었어요. 이렇게 네 분을 모셔서 원내 공동연구진과 함께 [‘한국적인 것’의 표상들 간행위원회]를 꾸리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연구과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간행위원회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 3~4개월 정도는 과제 진행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한국적인 것’의 키워드를 무엇으로 할 건지, 필진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섭외할 건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원외에서 간행위원으로 모신 분들도 모두 저희 취지에 공감을 하셔서, 1년차 공동연구원이셨던 장신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면 “도발적인 한국학”을 해 보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재벌’이나 ‘광장’, ‘페미니즘’과 관련된 주제들, 나아가 ‘미사일’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주제까지 아우르는, 한국적인 것을 표방하는 다른 과제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주제들을 집필 키워드로 많이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트로트’ 같은 주제도 넣고, ‘청도 소싸움’이나 ‘구로디지털단지’, ‘비정규직’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해 총 32개의 주제를 선정했고, 각 주제에 맞춰 원고를 써 주실 수 있는 필진들까지 섭외해 진행했습니다. 연구과제의 출범 배경이나 초기 진행 상황은 이렇고요.

저는 일단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다른 분들께 돌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사회자는 아니지만 연구책임자 입장에서 한번 여쭙보고 싶은 게 있기도 하고요. 원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셨던 김철식 선생님과 원외 간행위원으로 참여하셨던 허운 선생님께서 이 연

구과제 참여하시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서호철: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김철식: 이 과제에 참여했을 때는 제가 한중연에 온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었습니다. 정헌목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서 과제를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한중연에서 제 전임으로 사회학 전공에 계셨던 김경일 선생님께서 이 과제를 사전에 하였고, 정헌목 선생님께서 “이런 사정인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니 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의 입장에서 거절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참여했어요. 그런데 과제에 참여한 한중연 내부 구성원들끼리 앞에서 얘기했던 간행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적인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앞서 언급했던 문사철(文史哲)로 대표되는 부분이나 전통 연구,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어 온 유산을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지금의 상황에서 재해석하는 것과 관련돼 ‘한국’, ‘한국적인 것’이 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 과제를 하면서 제 전공도 현대 사회과학 중 사회학이고 하니까, 기존과 다르게 한중연에서 여태까지 잘 안 해 봤던 방식으로 한국적인 것을 다뤄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당면해 있는 21세기 현재의 한국 사회를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위기를 들잖아요. 복합 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디지털화, 기후 위기라고도 하고, 저출생 고령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고, 그 자체로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현상은 우리가 그간 형성해 온 어

면 특성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인가. 물론 이것은 한국뿐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경향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한국에서 좀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한 방식으로 현상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 사람들의 삶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만들어져 왔던 경험을, 그간의 실질적인 변화의 궤적이나 역사적 경험을 역동적으로 드러내 보는 것을 ‘한국적인 것’을 표상하는 것으로 새롭게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려면 그동안 많이 해 왔던 전통 시대에 대한 연구보다는 지금의 위기를 낳고 그것을 쪽 만들어 왔던, 현재적 위기의 기반을 형성해 온 그간의 경험을 반영해서, 또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키워드로 잡아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다행히 간행위원회에서도 대체로 그런 부분에 많이 공감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좀 재미있게, 새로운 것을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16개씩 2년간 총 32개의 키워드를 잡아 연구를 진행했는데, 과제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키워드를 관리하는 건 사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 영역, 제가 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섭외하면 되지만, 연구책임자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주제가 좁혀지긴 했죠. 좁혀졌다기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에서 나타나는, 한국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독특한 키워드나 주제를 발굴해서 그와 관련된 이론적, 실천적, 경험적인 것을 다루는 방식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간 강사를 전전하던 시절에 모 대학에서 ‘한국사회연구’라는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전공인 사회학에서 다루던 여러 주제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한국에 굉장히 독특한, 때로는 극단적인 특징을 드러내 주는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이 유독 1위가 많고, 예를

들면 교통사고율 1위, 자살률 1위, 노동 시간 1위. 이런 식으로 유독 1위 현상도 많고, 극단적인 측면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돼 있지만 그와 동시에 뭔가 한국에서만 독특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속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현대 사회에서 한국이 경험한 역사적 궤적, 다시 말해 해방 이후 산업화를 거치고, 민주화를 거치고 이후 세계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혹은 또 그 이상을 위해서 분투하면서 형성해 낸 고유한 속성을 규명해 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해방 이후 역동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전통적 영역이 새로운 현대적 상황과 결합하면서 한국의 고유한 특성을 만들어 낸 거 아니냐, 그것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한국적인 개념들을 뽑아 보려고 한 것이죠.

저는 이번 연구에서 한국적인 것을 표상해 주는 다양하면서도 특징적인 주제들을 잘 잡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 ‘저출산’, ‘재벌’, ‘네온사인 십자가’, ‘김치’, ‘비정규직’ 등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면서도 한국의 독특한, 한국적인 방식을 드러내 주는 주제와 키워드를 잘 잡아서 작업해 온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유의미한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철: 허운 선생님께서는 이 연구과제에 어떻게 참여하셨나요?

허운: 저는 이 과제의 공동연구원인 장신 선생님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 “이런 걸 한다.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합류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전까지 한중연에서 뭘 해 본 적이 없어서 한중연에 대해서는 약간 선입견이랄까요, 한국의 전통이나 국학에 초점을 맞춘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중연에 온 것도 오늘이 처음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정현목 선생님께서 <‘한국적인 것’의 표상들> 과제에 대해 설명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중연답지 않은 뭔가를 해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면 좀 재미있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한중연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사실은 좀 흥미롭게,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고요. 저는 1, 2차년도 합쳐서 7개의 꼭지를 기획하고 필진을 섭외했습니다. 저도 매년 한 편씩 글을 썼고요. 제가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동안 한중연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만들고, 이후에 한중연에서 계속 이런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인재 풀이 고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글을 쓰는 연구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혐오’(허운), ‘위안부’ 운동(박정애), ‘여성의 비정규직화’(희정) 등을 1차년도에 했고요. 2차년도에는 제가 ‘광장의 젠더화’에 관해 정리했고, ‘반성폭력 운동’을 권김현영 선생님이, ‘K-pop 팬덤’은 김수아 선생님, ‘탈분단’과 관련된 측면은 이슬기 선생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노동이나 통일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나 키워드라도 다른 각도에서 보여 줄 수 있는 이야기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적인 것’의 표상들> 작업을 통해서 “지금 여기의 한국”을 이야기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학생이 K-pop이나 한류를 통해 한국에 오고, 대학원에 찾아오는데 고전적인 편제나 전통적인 연구주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부 과정의 한국학이나 한국어 교재에서 김치나 한복, 경복궁 등을 ‘한국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전통적인 측면뿐 아니라 아파트, 십자가, 성수동과 같은 지금의 한국을 보여 주는 의미의 작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호철: 이걸 누구한테 여쭙봐야 할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과제의

제목을 보면서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사회학에서는 ‘사회적인 것’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아주 쉽게, 초등학생들한테 사회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를 설명한다 치면 ‘사회’를 연구한다고 했을 텐데, 언제부터가 ‘the social’이라는 영어를 ‘사회적인 것’이라고 번역해서 쓰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말을 쓰기가 사실 되게 어색한 거죠. 영어나 프랑스어 같으면 ‘socia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고, 여기서 ‘sociology’가 나왔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사회적인 것’이라는 말은 뭔가 한국어도 아닌 것 같은… 그런데 지금 ‘한국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할까, 약간 심술궂게, 왜 이런 어색한 개념이 제목에 등장하게 됐을까 내지는 혹시 다른 대안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저도 대답을 못할 질문이지만, 먼저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혹시 여쭙봐도 되는지요.

정헌목: 기대하신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이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맡게 된 사정을 말씀드린 바 있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저희 연구과제에 앞서 김경일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과제의 제목에 ‘한국적인 것’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적인 것’의 지형들>이라고… 그런데 그 제목을 그대로 할 수는 없어서 <‘한국적인 것’의 표상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적인 것’이라는 표현이 지금도 좀 어색해요.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공동연구원 선생님들이나 간행위원회 선생님들, 그리고 외부 집필자로 모신 분들한테 제가 이메일을 수십 통 쓴 거 같은데, 메시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일부러 빼놓지 않고 ‘한국적인 것’에 작은 따옴표를 붙였어요. 일단 저 스스로가 이 표현이 어색해서요. 올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전체 결과물 출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단행본 제목에도 이 표현을 그대로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거 같긴 합니다.

서호철: 전체적으로 무슨 연구 방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한 합의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은 모르겠고 각자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하나씩 쓰자 이런 거였는지, 아니면 공통의 관심사가 됐든 방법이 됐든 공동연구자들 사이에 뭔가 좀 공유된 게 있었는지요?

정현목: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 간행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논의했습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원고를 써 주실 수 있는 분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추려 이분들이 어떤 주제를 집필해 주실 수 있는지 고민했어요. 이 일은 간행위원회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을 통해 추천받고 직접 섭외도 부탁드리고 하는 식으로 진행했구요. 사실 이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크게 기대했던 게 간행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섭외력과 설득력이기도 했거든요. 적어도 그분들이 믿을 수 있는, 이 연구과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 취지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고 섭외하는 것이 1차적인 접근이었다면, 2차적으로는 제가 다른 간행위원 선생님들께 회람을 드리고 피드백도 받았지만, 각 집필자에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지켜 주세요.”라고 정해서 보내 드렸던 집필 가이드가 있어요.

서호철: 집필 가이드까지 만들어서... 무서운데요.

정현목: 분량은 길지 않게 A4 용지 한 장 반 정도로, “이것만 지켜 주세요.”라는 집필 가이드를 연구팀에서 만들어 외부에서 모신 집필자들에게 보내 드렸어요. 집필 가이드를 보면 이 연구과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는 저희 입장은 거의 다 들어 있는데요. 집필 가이드의 첫 문장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흔히 ‘한국적인 것’이라 하면 한국의 전통문화나 ‘한(恨)의 정서’, ‘자랑스러운 한국(의 무언가)’ 같은 걸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

니다.” 아까 서호철 선생님께서 서두에 하셨던 말씀이랑 겹치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걸 벗어나는 걸 목표로 했어요. 집필 가이드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한국적인 것’은 이렇듯 급변하는 역사·정치의 흐름을 경유하는 가운데 형성되었습니다. 즉, ‘한국적인 것’을 고정된 원형으로서의 전통문화나 정신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역사를 경유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과 경합을 통해 만들어진 정치·문화적 구성물로 보고자 합니다.” 이런 접근을 바탕으로 계급이나 성별, 나이에 따라 한국사회를 상이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인간 주체가 만들어 낸 각종 산물, 역사적 거점이자 삶의 터전으로 기능하는 장소와 공간, 이곳을 매개로 전개되는 노동·교육·종교 행위와 다양한 여흥을 포함해 집필 항목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크게 세 가지로 기본적인 집필 방침을 정해서 집필 가이드에 적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구체적 소재와 집합기억, 그리고 기억이 경합하고 재생산되는 역사적 맥락 아래 ‘한국적인 것’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적인 것’을 구성하는 집단, 공간,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그것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 속해 있는지 밝힌다. 또한 그러한 역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과정의 우연성·우발성을 통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맥락임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역사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한국적인 것’이 뚜렷한 문화적 실체가 아닌 일종의 권력 담론의 작용 아래 나타나는 장면에 주목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각종 배제라든가 착취라든가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집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가이드에 따라서 굉장히 충실하게 잘 써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서호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저도 지금 생각이 정확하게 서지는 않

는데…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명백하게 또는 암암리에 있는 생각이, 기존의 한국학이라고 하는 게 전통문화, 뭔가 좀 자랑스러운 거고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었던 데 반해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쁘고 부끄러운 것이든 간에 그냥 현재 한국의 현실, 한국의 상황을 조금 강조해 보자, 이런 느낌은 있는데. 글썄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을 그러면 굳이 한국학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을까.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냥 자기 분야를, 문학이든 사회학이든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꼭 한국학이라고 불러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떤가요? 처음에 말했듯이 그냥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인문사회과학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굳이 이걸 한국학이라고 부를 때 제도적인 것이 됐든 태도가 됐든 어떤 다른 차이가 생겨나는 것 같으세요?

김철식: 제가 좀 얘기해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연구과제명을 <‘한국적인 것’의 표상들>이라고 하는 데 나름대로 간행위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적인 속성에 대한 느낌이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현상 중에서 한국만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가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고유하다고 느껴지냐면 세계적인 경향이 있고, 한국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좀 특수하게 드러나는 양상이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을 집어내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면에 한국이 그동안 경험해 왔던 고유한 궤적이 응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면 한국의 그간의 고유한 경험, 사람들의 삶의 경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왔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행위원회 수준에서 이러한 점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잡아 내려 했습니다. 무조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을 고려해서 키워드를 잡는다고

보다는, 대표적 키워드들을 먼저 잡으려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키워드, ‘스마트폰’이라든지 ‘네온사인 십자가’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나타나는 ‘젠더’와 관련된 주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찾아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키워드를 뽑아낸 가운데, 다음으로 이런 주제를 연구했던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글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필자를 찾았거든요. 이런 점에서 글을 쓸 수 있는 연구자를 찾을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고, 나름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독특한, 독특하다는 게 꼭 완전히 특수하다기보다는 한국적인 양상으로 드러난다고 판단되는, 설명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응축돼 만들어진 것 같은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제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주제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면 해당 주제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던 것이죠.

“한국학이라는 게 뭐냐.” “왜 이런 것을 한국학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해하는 방식의 한국학은 금방 언급했듯, ‘한국적인 어떤 속성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적인 고유한 속성들이, 제 전공 영역에서 고유한 속성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모두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것들이 융합돼 새로운 좀 더 큰 속성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속성들은 그간의 사람들의 여러 실천과 갈등과 사회적 관계와 기타 등등의 경험과 분투 속에서 응축되고, 결집되어 왔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잘되면 그러한 고유한 방식을 개념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갈 수 있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고유한 속성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른 나라와, 세계적인 경험과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또 세계적 경향이 한국에서의 실천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면서 고유한 속성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한국학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것’의 표상들>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드러내 줄 수 있는 키워드를 잡아내는 게 중요했지요. 그렇게 도출한 주제, 키워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필자로 섭외했습니다.

허윤: 저도 방금 김철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점과 연결해 말씀드리자면, 미국식 한국학이 아닌 한국이 발신자가 될 수 있는 개념들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간행위원회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의 세계사적 상황 속에서 한국이 발신자가 된 표상, 개념, 주제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의 한국의 반성폭력 운동이 주목받고 있고, 지금 동아시아 일대에서는 한국식 페미니즘이 선도하고 있다.”는 아이디어로 이어졌는데요. 저희 발표회 때 김수아 선생님께서 미국의 팬덤 연구를 사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팬덤 연구와 팬덤 활동 자체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고, 이것이야말로 한국을 필드로 삼아 연구해서 세계에 발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한국이 발신자로서 생산하는 학문, 표상, 가치를 생각하면서 한국적인 것을 저 나름으로는 고민했습니다. 저희 간행위원 선생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듯하고요.

정현목: 두 분 선생님께서 부연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집필 키워드나 집필자를 선정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집필자를 정하고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정 자체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간행위원회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 가치에 맞춰서 큰 틀의 키워드들을 정하고, 그다음에 외부 집필진 섭외할 때는 해당 필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했고요. 그런데 필진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일단 간행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논의하는 역할이 매우 컸어요. 이를테면 페미니즘 관련 주제라거나, 아니면 STS(과학기술학) 관련한 주제 같은 경우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기홍 선생님께서 정말 큰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여기에 아까 허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학문의 발신자라는 측면에서 더 추가하자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외국의 학문적 논의를 후발 주자로 따라가기만 할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와 같은 사회과학 연구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한국 연구자들이 해 온 방식, 그러니까 외국에서 생산된 이론 내지 개념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한국에 소개하는… 뭐랄까요, ‘지식 소매상’ 내지 ‘지식 도매상’ 같은 지금까지의 그런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제가 전공하는 분야로 예를 들어 보면, 문화인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구 대상으로서의 ‘지역’ 내지 ‘필드’거든요. 나는 중국 전공이다, 일본 전공이다, 인도 전공이다, 아니면 남아메리카 전공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민족지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론 생산을 중시해 온 게 인류학의 특성인데, 그 특정한 연구 주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연구 지역이 짝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경제인류학의 경우 멜라네시아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친족 관련한 분야는 주로 중앙 아프리카나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신화 연구는 아메리카 대륙 관련 연구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의 한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팬덤이 정말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이상 팬덤 관련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이론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그냥 한국의 사례를 갖고 이론을 생산하면 바로 외국에 우리가 발신할 수 있는, 학문적인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한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나온 그 현상들의 기저

에는, 그리고 역사에는, 우리가 겪어온 어떤 역사적 배경이 켜켜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온갖 사회적 불평등을 낳게 한 측면도 있겠고요. 아니면 팬덤 같은 현상들. 사실 팬덤도 좋게 볼 수만은 없는 어두운 측면이 꽤 있고요. 그런 현상들에는 한국적인 것들이 다 엮여 있던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의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소위 국학 위주의 한국학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온전히 포착해 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외국에서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관심사와도 더 잘 맞물리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편집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해외에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 외국인 연구자들이 한국의 어떤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한국이 바로 이론 생산을 위한 전진 기지, 필드가 되어서 우리가 학문적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학이라는 키워드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혹은 “저건 진정한 한국학이 아니야.”라고 쳐낸다던 곤란하겠죠.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이것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외에 발신하고 싶은 한국학은 굉장히 밝고, 자랑스럽고, 그런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혹은 가치와 같은 것들이 많은데, 사실 한국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던진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해주는 것도 지금 한국학이라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옹당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이 예전에 거둔 과거의 문화적인 성취, 당연히 자랑스러운 성취들이 있죠. 당연히 그런 것도 널리 알려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자의 반 혹은 타의 반, 아무래도 후자인 경우가 많겠죠. 그렇게 외부에서부터 주어진 근대화라는 과제를 한국이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쪽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어두운 측면들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어두운 측면들을 직시하는 그런 작업들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호철: 오늘 간담회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K-pop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죠. 그런 연구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아까 정현목 선생님께서 팬덤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BTS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물론 단 한 곡도 다 들어 본 적이 없어요. BTS 멤버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한강도 마찬가지로인데, 제가 한강 첫 번째 소설을 읽고 난 후 재미가 없어서 안 읽어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았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노벨상을 받든 말든 내 취향은 아니고 그냥 한국에 그런 좋은 작가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말하면 뭐 제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BTS도 저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그런데 외국 학생들이 유학을 와요. 지금 유학오는 학생들 보면 상당수가 대중문화의,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아카데미즘에서는 아직까지 대중문화, 한류, 한국의 하이퍼 모더니티를 학문적으로 설명해 줄 만큼의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 기성세대의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아직은 부족한 상태여서. 그래서 만약 그런 팬덤이나 K-pop이나 이런 걸로 논문을 쓰고 싶다는 학생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대학원에서 하는 학문이 아니란다.” 하고 설득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한국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문제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폭력적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학생들의 관심을 기존 학문의 틀 속으로 돌려놓거나 끼워 맞춰서 논문을 쓰도록 지도하는 상황 이죠. 그걸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저는 물론이고 한국 학교, 학계 전체도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학문적 접근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나 언제까지 “안 된다, 이것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한테 남아 있는 방법이… 같이 학생들과 배워 가면서? 혹시 경험하신 바가 있으시면 조금 나눠 주시죠.

허윤: K-pop 관련해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호철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K-pop이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BTS라는 ‘문제적 인물’의 등장과 더불어 뒤늦게 K-pop의 세계에 입문하거나 본래 K-pop 팬이었다가 연구자가 되어서 ‘아카데미에 있는 팬’ 일명, ‘아카팬’이 되는 경우죠. 아카팬은 BTS를 학문적으로 철학이나 사회학 개념을 적용해 분석하세요. 그들의 가사나 메시지, 사회적 의미를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함정에 빠지기 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K-pop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조직화된 산업이어서 그 메시지는 아티스트가 발신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브랜드가 발신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구조에 대한 연구를 빼놓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신화학이 되는 거예요. 사실 K-pop은 굉장히 사회학적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pop은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사실 K-pop 회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도 K-pop 연구죠. 최근에는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어요. ‘K-pop의 사회학화’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전통적인 사회학에서 설정했던 문제의식을 통해 K-pop 산업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K-pop 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사회적 효과를 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논문들이 K-pop 산업에 대한 분석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들고요.

지금 한국학계는 K-pop을 분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 그러니까 뒤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호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K-pop에 대한 이해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반드시 K-pop을 경유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방법론이나

문제 설정 등을 지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에서 온 학생이 루마니아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실 저는 루마니아어 독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도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번역 문학의 구조와 한국 문학의 유통 방식을 설명해 문제의식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생이 알맹이를 채워 가고, 교수가 방법론이나 형식적인 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발신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유학생들이 모국에 돌아가서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발신하는 학문으로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 비슷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덧붙이자면, K-pop에 대해, 그러니까 산업적 측면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K-pop이라든지 BTS가 확산되는 게, 이런 내용들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구조가 어떤 것이냐 하는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겠죠. 이와 더불어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BTS 같은 아이돌그룹이 많을까?”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맨날 새로운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왜,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규명하다 보면, 거기에는 그간 사회에서 형성되어 왔던 여러 가지 관행이나 변화가 반영돼 있습니다. 가령 지금 당면한 새로운 현상의 기저에는 전통적인, 가족적인 한국의 정서들이 착근돼 있었고, 그런데 그러한 가족이나 공동체라는 것이 사실 사람을 억압하거나 구속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정적 경험이 근대화, 현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의

가치와 결합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개인화가 많이 진행되고, 개인화된 가운데 자유롭게, 어쨌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열망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설명은 그냥 저 혼자서 소설을 쓴 것이지만요. 어쨌든 오늘날 K-pop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산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간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이리저리한 문화나 여러 사회적 경험을 통해 오늘날의 새로운 주체들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목: 저는 서호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대중문화 연구, 그러니까 꼭 K-pop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등을 다루는 대중문화 연구자들이 존재하거든요. 사실은 한국의 K-pop,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존재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 연구자들을 한국학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어떤 힘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지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가,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학문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학문 연구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연구자, 음악 연구자, K-pop, 드라마, 팬덤 연구자… 당신들이 하는 건 학문이 아니잖아.”라는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중문화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분야에서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국학이라는 영역에서 제대로 된 학문 성과로 평가하지 않고, 받아들여려 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문제입니다.

서호철: 글썄 이걸… 지금 제가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처음에 한국에 번역돼 가지고, 한때 엄청난 유행이었잖

아요? 제가 석사과정 때 처음으로 학위논문이라는 걸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한국어로 번역된 푸코라는 게 모두 단행본이기는 했지만, 내가 논문을 쓰면서 제목을 촌스럽게 ‘한국의 어떤 현상에 대한 연구’라고 쓰지 않고, 그렇게 『감시와 처벌』, 『말과 사물』, 이러면 어떻게 될까? 물론 푸코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또 유럽이니까 여러 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종횡무진하면서 쓸고 다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처럼 초공간적인, 보편적인 진리를 다루는 것처럼 자신 있게 쓸 수가 있는 걸까? 그런데 사실 보면 유럽 인간들이 대개 다 그렇죠. ‘독일적 사유에서의 존재와 시간’이 아니라 그냥 『존재와 시간』이죠. 그런 점에서 한국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거스른다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현상이든 나쁜 현상이든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이 지금 세계 1위이거나 가장 하이퍼 모던하거나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꼭 제목에 “지금 한국에서의 어떤 특수한”이라는 한정사를 붙이고 싶잖아요. 이걸 떼면 안 되는 걸까, 그런 한국학은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한편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마 한국문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덜할 수도 있겠는데, 사회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10년 전까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한국만의 무슨 사회학 이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경험이 되게 특이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특이한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만의 개념이나 이론이나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 한국학대학원의 사회학 전공의 경우에는 지금 외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이, 대개 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아니고 한국학과를 나온 학생들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다 한국의 역사, 사회를 교양 수준에서 조금 배우고 오는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당장 2~3년 안에 석사논문을 써야 한다면, 초보적이지만 통계도 조금 가르쳐야 되고, 질적 방법도 있고, 사회학의 고전들도 읽어야 되고,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무슨 수업이 되었던

대개는 서양 고전들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떨 때는 독일에서 온 친구한테 한국말로 번역된 베버(Max Weber)를 읽으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독일어로 읽어 와도 된다고 해야 하는지. 그런데 그건 제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수업 시간에 읽는 책들 상당수가 영어나 유럽어 책들을 번역한 것인데, 언젠가는 우리가, 한국학이 발신자가 된다,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늘 이야기해 왔던 꼭 서양 학문이 아닌 ‘우리의 학문’, ‘제3세계의 학문’ 이런 게 있을까? 아니면 지금 우리 학문의 틀이 개념과 수업 방식과 논문 쓰는 방식,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 학술지 모두 서양 건데, 그러면 거기에 한국이 끼어드는 자리가 어디쯤일까? 이럴 때 여전히 우리가 ‘소재로서 한국적인 것’이라는 거 말고, 좀 더 그럴듯한 한국학이라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것이 지금 저의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물어볼 만한 문제인가요?

김철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원래 제3세계 학자들이 다 특수한 속성을 어필하기 때문에, 중심부의 이론에 따라서 우리는 좀 다르다고 어필하면서 살아왔던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학이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한국학이란 한국에서 나타나는 경험들을 개념화하는 작업입니다. 개념화라는 건 어쨌든 일종의 큰 틀에서의 객관화겠죠. 한국은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데하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엄청나게 특수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 정도 수준에서는 여러 일반이론 속에서의 개념인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특수한 현상이 과연 보편화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보편화된다는 것은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확산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개념화한 것을 다른 사회나 다른 지역에 적용했을 때 타당한가의 문제가 남죠. 물론 타당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타당한 영역이

나 개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정말 한국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소위 개발도상국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 한국의 경험을 이런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념화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보편화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의 보편적인 이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그런 것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사람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이론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그런 방식의 개념화가 필요하고, 계속 만들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호철: 우리 살아생전에 그게 가능할까요?

김철식: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면서 그걸 모아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런 것이 누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겠죠.

서호철: 희망찬 말씀이네요. 장문석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장문석: 여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즐겁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학을 둘러싼 정말 많은 쟁점들이 있으며, 한국학의 내부에는 복잡성과 비균질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조금 넓은 이야기가 될 듯합니다만, 한국학에 대해 논의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첫째, ‘한국’, ‘한국적인 것’, ‘한국학’이라는 세 개념 사이의 낙차, 둘째, ‘교육’을 위한 한국학과 ‘연구’의 한국학 사이의 거리, 셋째, 한국학을 구성하는 개별 학제의 전통 및 위치 등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본

격적인 논의의 주제로 미루어 두고, 세 번째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학이라고 불리는 학술장(場)은 인문학, 사회과학 등 보편적인 학술 명칭으로 자기를 정의하던 학제와 원래부터 한국학 혹은 국학이었던 학제가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등은 사회과학이라는 보편적인 명칭을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한국학이 된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한국문학, 한국어학, 한국사학과 같은 분과는 처음에는 국학이라고 불리다가 이후 한국학으로 불리게 됩니다. 한국학을 구성하는 학제는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과 같이 보편적인 학문 체계 안에 속한 것들과 한국학으로 시작된 것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이때 전자의 학제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의 경험과 후자의 학제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의 경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학이라는 가상의 학제 혹은 학문 영역이 언제 정착했다고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개칭된 사례가 중요한 징후였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1978년에 창립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2005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관의 개칭이라는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한 개칭을 필요로 하고 추동했던 한국의 여건과 전 지구적 상황, 그리고 제도적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억인데요. 제가 2005년 학부 3학년 시절에 사회학과 정진성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고 있었는데,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에 선생님께서 아침 일찍 수강생 수십 명을 전부 버스에 태우고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문명과 평화’ 국제 포럼이 열려서 와다 하루키 선생님, 정진성 선생님 등 여러 학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날 정진성 선생님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보시고 고개를 갸웃하시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기관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학이라는 용어는 연구자

들에게 낯설었던 듯합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의 개칭은 한국학의 구조변동을 보여 주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한국의 과거, 전통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면, 2005년에 새롭게 명명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점차 한국의 과거를 넘어서 한국의 현재에도 주목할 것을 요청받았던 것이죠. 제가 공부하는 한국문학을 예로 들자면, 한국문학 연구는 전통적으로 역사학과 대화하면서 학문적 지향을 구성하다가, 최근에는 인류학을 참조하면서 학문적 지향을 새롭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역사학의 시각으로, 혹은 한국의 과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시작했던 정신문화연구원이 2005년 어떤 상황을 계기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개칭합니다. 한국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후 한국의 현재에 대한 관심 또한 중요한 학문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2010년 이후 한류의 확산은 그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였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의 전환, 역사학에서 인류학으로의 전환 등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면, 이러한 현상은 ‘후진국 한국’에서 ‘선진국 한국’으로의 전환, 혹은 ‘수신자 한국’에서 ‘발신자 한국’으로의 전환과도 연동해 있습니다.

‘한국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한국학의 시간, 한국학의 공간, 한국학의 주체와 언어, 한국학의 구조와 제도, 한국학의 자료 및 연구 대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한국학의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1930년대의 조선학, 1960~1970년대의 국학, 2000년 이후 한국학의 연속과 단절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학의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한국학, 동아시아의 한국학, 세계의 한국학과 같이 여러 층위의 한국학을 떠올릴 수 있고요. 한편 한국학의 주체와 언어의 측면에서는 무척 복합적이고 비균질적인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학은 한국인, 북한 사람, 재일조선인, 조선족, 외국인과 같은 다양한 주체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구성됩니다. 한

국학의 구조와 제도의 다양성 차원에서 ‘한국의 학술장 안에서의 한국학’과 ‘외국의 학술장 안에서의 한국학’을 분별하게 됩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지식의 생산 및 공유의 규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연결점을 공유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학 및 연구소의 학제,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각종 사업,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제도 등이 연동하면서 한국학의 제도적 기반을 구성하고 지금도 조금씩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학의 공간, 시간, 주체, 언어, 구조, 제도 등이 다양한 만큼, 한국학의 자료 및 연구대상 역시 무척 복합적으로 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학의 복합성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한국학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서호철: 좀 넓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처음에 좀 생각했다가 오늘 간담회가 아니고 다음 기회에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적어놓은 게... 저도 처음에 인문사회과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인문사회과학 말고 자연과학도 사실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할 수 있죠. 특히 생물학이나 지질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반도와 한반도의 식생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무슨 글을 쓴다고 킁킁거리다가 《한겨레21》인가에 실린 되게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그때 한 100년 만에 한국에 빈대가 다시 발생했다고 해서 한동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빈대 이야기를, 어떤 분이 식민지기 때 자료를 찾아 가지고 쓰신 거예요. 빈대가 두 종류가 있대요. 날개가 없는 빈대가 있고, 또 반날개 빈대라고 날개가 조그맣게, 퇴화하다가 남아 있는 빈대가 있대요. 그런데 식민지기에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생인가를 하던 일본 연구자가 이걸 조사한 거예요. 방학 때 집에 간 학생들한테 자기 집, 자기 동네에서 빈대를 채집해서 보내라고 해서 학생들이 채집했는데, 되게 놀라운 결과를 얻은 거죠. 왜냐하면 반날개 빈대는 원래 아열대에 사는

곤충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했더니 반날개 빈대가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채집 방법이 아주 과학적이지 않기는 했죠. 그 기사를 읽고 당시에 제가 쓰던 글에다가 소제목을 ‘빈대의 한국학’이라고 붙였는데, 출판사에서 너무 선정적이라고 해서 잘렸습니다. 잘리기는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런 거예요.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이나 다른 외국인 여행자가 한국에 왔어요. 지방에 가서 주막집 봉숫방에서 자려고 했더니 찔찔 끓는 가마솥을 방 밑에다 걸어 놓아서 한여름에도 30 몇 도가 되는 찔찔 끓는 방이에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빈대가 나와서 괴로웠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 사회학자나 역사학자나 문학하는 사람은 이걸 어딘가, 그 당시 한국에 대한 묘사로 써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반도 전역의 빈대와 반날개 빈대의 분포에 관한 자연과학 논문을 읽으면, 이것은 한국학이 될까 안 될까? 꼭 뭐가 당시에 어떤 주체의 경험과 의식을 통과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의미 부여를 해 놓은 사건들, 일화들 이런 것은 한국학이 되고, 한반도 지질 구성이나 해류나 기후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자연과학 영역에 속하니까 여기서 빠져야 되는가?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자연과학은 없잖아요. 별자리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있어요. 하여튼 조선시대 때 사람들의 의식을 통과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별자리를 어떻게 이해했고 이런 게 조금 물어 있으면 그것은 역사이고 한국학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건가?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과연 한국학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종합적 학문이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여전히 인문사회과학과 문화예술과 자연과학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조금 전에 장문석 선생님께서 큰 이야기를 하셔서 덧붙여 봤습니다.

정현목: 그런데 서호철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소위 ‘두 문화’,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인문학 간의 분리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혹은 과학기술학의 등장과 같은 사실과 정말 딱 맞아떨어집니다. 요즘 이와 관련해 이른바 신유물론도 그렇고, 학문 분야를 나누지 말고 모두 엮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지금의 유행이죠. 이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치학자 중에 티머시 미첼(Timothy Mitchell)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티머시 미첼이 2000년대 초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집트를 다룬 *Rule of Experts*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첫 챕터 제목이 ‘서발턴(subaltern)은 말할 수 있는가’를 패러디한 ‘모기는 말할 수 있는가(Can the mosquito speak)’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집트가 영국의 식민 지배에 놓이면서 나일강에 댐을 건설하는 등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진짜 모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쓴 챕터거든요. 서호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빈대의 한국학’에 비춰 본다면 미첼은 ‘모기의 세계사’ 내지 ‘모기의 중동학’, ‘모기의 이집트학’, ‘모기의 정치학’을 쓴 셈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서호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들이 되었건 그런 존재들을 아우르는 학문적 접근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진행했던 연구과제에서도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과학기술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집필진으로 많이 모셨고요. 지금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문사회과학의 조류에서 서호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아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식처럼 되어 가는, 매우 정당한 문제 의식 내지 진행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호철: 이것도 여러 선생님들한테 얽혀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에 장문석 선생님이 제도적 기반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면 한국학이라고 하는 건 좀 느낌이 그렇죠. 사실 유럽의 모든 학문이나 지금의 대학 제도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식의 펀딩과 세일즈, 투자 등을 통해서 만들어져 온 것이기는 한데, 요즘 좀 덜해진 것 같기는 하지만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죠.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들, 한국학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자 하는 것이, 때로는 연구자들이 먼저 나서서 꾸리지 않더라도 어떨 때는 정책적 과제가 돼서 부여되고 하는 형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는 쪽에서도 원하는 게 있는 거죠. 전통 한국의 자랑하고 싶은 문화유산에서부터, 현대 한국을 다루더라도 현대 한국이 문제가 많고 앞날이 없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반짝반짝하고 빛나고… 한때 ‘스파클링 코리아’라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이나믹 코리아’, ‘스파클링 코리아’ 이런 쪽에 초점이 모이는 거예요.

허윤 선생이 예전에 쓰셨던… 그룹 이름이 2AM인지 2PM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박재범에 대한 논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연출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 무대에 서고 할 때는 상당히 무슨 쿼어 코드 같은 것들이 있다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이돌한테 바라는 것은 사실 정치인들도 안 지키는 공인으로서의 어떤 위치, 자세를 그 사람들이 지켜 주기를 원하고, 되게 바람직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이에 큰 갭이 있는 거죠. 어떤 게 진짜일까 하고 물어볼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학 연구자들의 처지도 약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어느 정도까지 비판적 연구 내지는 선 넘는 발언들이 허용되지만, 정치적 억압이나 검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는 계속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야 하고 한국학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고, 한국학을 위한 지원 과제는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허윤: 그 논문을 쓸 당시에는 팬덤 안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가의 차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퀴어한 퍼포먼스가 가능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퀴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들 간의 친밀한 행위가 전혀 퀴어하게 독해되지 않는 사회여서 가능한 지점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재네 게이다!” 이러면서 막 기겁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재네 친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인데요. 한국에서 여자들끼리 손잡고 함께 화장실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는 그게 완전히 동성애 코드인 거잖아요. 또 아시아권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성 교제가 굉장히 위험한 섹슈얼리티라는 평가를 받는 데 반해, 동성 간의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권장돼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성끼리만 놓고 이성이랑 안 놀면 폼행이 올바르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동성 간의 친밀성은 무척 권장되는 사항인 거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K-pop에서 퀴어한 코드들은 퀴어의 비가시화와 맞물리면서 구성되어 왔습니다. 여성들끼리 굉장히 친밀하게 팬덤 활동을 하고, 성적으로 매우 자극적인 팬픽도 쓰는 등 엄청나게 퀴어한 문화를 즐기는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퀴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헤테로일 수도 있는 그 기묘한 장면이, 한국 문화권에서 사실상 퀴어를 비가시화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K-pop 가수들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미국 방송에 나가서는 해도, 한국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 너무 많은 논란이 되니까요. 팬덤 활동에 있어서도 퀴어 퍼레이드에 팬덤 깃발을 들고 나가면 엄청나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엄청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응원봉 집회에서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원래 민중대회를 나가는데 응원봉이나 아이돌 이름이 적힌 깃발을 들고 나가면 팬덤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왜 우리 그룹을 정치적

인 문제에 끌어들이나면서 당사자를 찾아서 사이버불링을 하는데, 이번 탄핵 집회에서는 다들 응원봉을 들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지점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서 그 논문에서 좀 더 나아간 지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팬덤이 “그래, 민주노총 집회에서 깃발을 들 수 있지.”라고 하면 사실 연예인도 “민주노총 집회도 필요하죠.”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연예인과 팬의 관계에서 행위성을 팬덤이 갖는 맥락이 있는 거죠. 팬덤이 싫어하지 않으면 언급해도 되는 지점들이 있기에 이 역학이 단순하지는 않다. 팬덤이 ‘바텀스 업(bottoms-up)’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그런 측면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있는 거라 앞으로 변동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호철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 등의 사이에서 저는 늘 고민되는 게 정부의 지원이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장르들이 있잖아요, 인문학도 그렇고, 연극이나 독립영화도 그렇고요. 학계에서 인문사회 박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학문적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텀스 업’을 계속 외치고 있지만, 그걸 위에서 안 들어 주는 측면이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한국적인 현상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부가 학술 진흥 사업들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서호철: 그냥 농담으로, 제가 예전에 무슨 정책과제를 맡아서 했다가 결과가 나온 뒤에 텔레비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광복 70주년 관련 사업이어서 위에서 내려온 과제였고 저도 사실 얼떨결에 연구책임자를 맡은 건데,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런 식으로 너무 솔직하게 밝혔나 봐요. 인터뷰 다 끝나고 기자가 “아니, 연구책임자님께서…”라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게 아

나라, ‘어찌다가 얼떨결에’ 그 말을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을 했다고 지적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헌목 선생님께서 이 과제를 2년 동안 하시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계속해 오셨던 아파트 연구라든지 지난번 SF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뭔가 미션처럼 해야 하는 연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나요? 아니면 이런 과제가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그쪽으로 흘러갈 방향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 같다고 여기시나요?

정헌목: 일단 서호철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크게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직접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기획해 만들어 낼 수는 없죠. 그런 사례가 간혹 있지만, 그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연구과제의 경우,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팀을 짜 2년간 진행했지만, 그 안에서 제가 갖고 있던 한국학에 대한 문제의식 혹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고 평소에 품고 있던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에 옮겨 볼 수 있는, 내·외부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과 힘을 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연합된 행위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신 일종의 ‘공모’죠. 그 덕분에 이번 연구과제가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꼭 탐다운식으로 뭔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만 하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이번 기회에 한번 실행에 옮겨 볼 수 있었고, 그걸 다른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해 볼 수 있었던 자리였고, 무엇보다도 방향성이 잘못되지는 않았던 거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분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한 결과발표회 자리였습니다. 한중연 규정상 이런 다년 연구과제는 매년 결과발표회를 진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여름에 1차년도 연구를 끝내

고 결과 발표를 할 때, 또 2024년 여름에 2차년도 연구를 마치고 결과 발표를 할 때마다 저희가 모신 선생님들이 저희의 취지에 맞춰 작성한 원고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어요. 그때마다 저희가 공들여 모신 집필자들의 발표와, 역시 저희가 간행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공들여 모신 토론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치열한 질의응답을 볼 때마다 “힘들었지만 정말 의미 있구나.”라는 생각이 매번 들었어요. 진행 자체가 힘들기는 했지만 연구의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뿌듯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편집위원장님께서 정부의 지원과 같은 외부에서의 선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종의 행위성을 발휘해서 한국 정부에서 “한국학을 알려라.”라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저희처럼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회과학자와 인문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기회로 활용해서 적당히 받아줄 거 받아주면서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나름 영리하게 연구 활동을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서호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철식: 지금 하신 말씀하고 관련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한국중앙연구원에서 “이런 거 해 보라.”라는 위로부터 떨어진 과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폭넓게 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해서 공동연구원을 모은다고 했을 때, 자기의 전공 영역이나 그 수준에서의 융합적인 확장은 이뤄질 수 있겠지만, 보다 폭넓게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중점 사업처럼 좀 강제성 있는 연구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이 들긴 했습니다.

서호철: 오늘 꽤 긴 시간 동안 모두 중요하고 의미 깊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문초록

이 글에는 학술지 『한국학』 편집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 과제 〈‘한국적인 것’의 표상들〉에 참여한 연구진이 모여 한국학을 둘러싼 여러 담론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학’이라는 용어와 그 범위 설정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한국학이 여전히 ‘과거’라는 시간적 범위, ‘문·사·철’ 중심의 학문 영역, 국가공동체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규범적 접근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적인 것’의 표상들〉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기존의 한국학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재벌’, ‘광장’, ‘여성혐오’, ‘자살’, ‘저출산’, ‘K-pop 팬덤’ 등 현대 한국 사회의 역동적이고 때로는 비판적인 표상들을 집필 대상으로 포함시킨 경험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범주를 넘어 대중문화, 과학기술학(STS), 일상의 영역과 사회문제 등 다양한 현상과 장르를 한국학의 연구 대상으로 포괄할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나아가 한국학이 단순히 외국 이론의 수입과 적용을 넘어,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개념과 이론을 생산하여 세계 학계에 ‘발신’할 수 있는 주체로 나아갈 가능성에 주목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들이 “도발적인 한국학”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시적 표상들을 관통하는 개념을 발굴하고 이론화하는 작업, 그리고 제도적 기반과 연구 환경에 대한 성찰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투고일 2025. 5. 30.

게재 확정일 2025. 6. 4.

주제어(keywords) 한국학(Korean Studies), 한국학의 경계(boundary of Korean Studies), 한류(Korean wave), ‘한국적인 것’의 표상들(Representations of the ‘Koreanness’), 한국학중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Reflections on Korean Studies: Focusing on the Research Project “Representations of the ‘Koreanness’”

Seo, Hochul · Kim, Chulsik · Jang, Moonseok · Jung, Heonmok · Heo, Yoon

This article presents a discussion among researchers involved in the project “Representations of the ‘Koreannes’,” commissioned by the editorial board of the journal *Korean Studies* an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participants explored various discourses surrounding Korean Studies, reflecting on the term “Korean Studies” and the challenges faced in defining its scope. They pointed out that Korean Studies still tends to focus on the “past” in temporal terms, adhere to traditional academic fields such as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and often adopts a normative approach that highlights the positive aspects of the national community. Centering on their experiences with the “Representations of the ‘Korean’” project, the participants described their efforts to incorporate dynamic and sometimes critical representations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such as chaebols, public squares, misogyny, suicide, low birth rates, and K-pop fandom—topics that have rarely been addressed in conventional Korean Studies. Through this, they discussed the need to expand the field’s boundaries to include popular 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everyday life, and social issues. Moreover,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Korean Studies evolving beyond the mere importation and application of foreign theories to become a field capable of producing original concepts and theories based on Korea’s unique experiences—thus becoming a subject that actively contributes to the global academic community. Finally, they emphasized that for such efforts not to remain isolated “provocative Korean Studies” events, there must be parallel efforts made to identify and theorize concepts that cut across diverse micro-representations, as well as critical reflection on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research environments that support the field.